

한세이(藩政)시대 때 혼조조카와 고요시 강 건너편에 있는 가메다령 이시와키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지 않아서 배로 강을 건넌습니다. 이 나루터는 「오와타리(大渡り)」라고 불렸으며 분세이 12년(1829년)에는 배나룻세가 어른 1인분이 15문이었습니다. 이시와키에서 온 배가 도착하는 곳은 그림처럼 나무 대문이 있어 「오와타리구치」라고 불렸고 「번소」와 「게시판」(고사쓰바(高札場))이 병치되어 있었습니다.

메이지 10년(1877년) 8월 15일, 이 오와타리구치에 선교 「한료바시(蟠龍橋)」가 개통되었습니다. 다리 모양이 넘실거리는 용 등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선교는 폭 3칸, 길이 63칸이며 작은 배 15척에 대들보를 올려 다리 횡목을 만들고 그 위에 두꺼운 판자를 깔아 인마가 다니게 하였습니다. 왕래자로부터 1인 5리, 차마 각 1전을 징수하여 공사비 1,630엔 상환에 충당했습니다.

한료바시는 13년 간 4번이나 유실되어 메이지 23년(1890년) 5월에 사카타 가도를 수리하면서 목교로 기공되어 같은 해 9월 14일에 준공되었으며 「유리바시(由利橋)」라고 개칭되었습니다. 다리 규모는 폭 3칸, 길이 90칸이며 공사비 3,845엔 38전 6리였습니다. 그 후 목교 「유리바시」는 메이지 24년(1891년) 대화재로 남단 20칸이 불에 타 유실됐으며 그 다음에 메이지 27년(1894년) 대홍수와 쇼와 4년(1929년) 홍수 유병으로 다리가 유실 및 일부 붕괴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쇼와 초기까지 「오와타리노바시(大渡りの橋)」라고도 불렸습니다.

쇼와 초기에 가지마치에서 유리바시를 통과하는 국도 10호 (쇼와 27년에는 7호)는 굴곡이 많아서 오케야마치에서 신도 사이를 직통노선으로 고치고 다리는 철교로 바꿔 쇼와 6년(1931년) 6월 2일에 준공했습니다. 다리 길이 175.54m, 유효폭 6.5m이며 공사비 약 21만 4천엔이었습니다. 철교 「유리바시」 개통 날에 깃발행렬, 불꽃놀이, 보트레이스 등으로 밤낮없이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개통 당시 유리바시는 도쿄의 에이타이바시(永代橋) 등과 모양이 유사하고 전 현에서도 유일하게 현대적인 다리였으므로 이후 82년간 사이에 고요시 강과 어울려 그 경관은 근대의 특색 있는 건축물로서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재의 유리바시는 헤이세이 22년(2010년) 8월에 착공해 다리길이 190.5m, 폭 19.0m, 총사업비 44억엔으로 헤이세이 25년(2013년) 1월 29일에 다리가 개통되었습니다. 현내 첫 사장교의 주탑(교면에서 50m)은 애칭으로 「유리타워」로 불리며 조명이 켜지는 밤에는 환상적인 경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시의 가격으로 기재했습니다.

1간은 약 181센티미터입니다.

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